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5월 16일(음력 3월 30일) 수요일 (주간) 제 628 호

"간탐심 버려야 자비세상"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초파일 앞두고 '나눔과 화합' 위한 보살행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가톨릭 주교회의 김희중 주교에게 '자비연꽃'을 달아주고 있다.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이 축제 분위기다. 산골 암자에도 오색연등이 물결친다. 도심지에는 대형 장엄물이 위용을 드러낸다. 봉축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서울시청 앞 점등식도 5월 9일 열려 '나눔과 화합의 등'에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 '나눔'과 '화합'을 기원하는 등이 켜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나눔과 화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통계청이 5월 9일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돈을 많이 버는 가구와 적게 버는 가구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져 계층간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이전투구에 목숨을 걸고 있다.

왜 나눔과 화합이 되지 않는 것일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0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눔이 잘 안 되는 것은 '간탐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탐심은 절약과 다르다. 절약은 내가 쓸 것을 아끼는 것이지만, 간탐심은 꼭 써야 할 것을 안 쓰는 것이다.

지관 스님은 "나눔에는 남의 괴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의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자기 것도 선뜻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관 스님은 또 "자기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나와 남 사이에 자비스러운 마음이 오고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내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남 생각 잘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고, 잘 못하는 사람은 중생이다.

그런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지관 스님은 "문수보살 같은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하고, 관세음보살 같은 따뜻한 자비의 가슴이 있어야 하며, 보현보살 같은 실천의 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지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나온다. 생각을 많이 하려면 침묵하고 관(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리는 말을 떠난 자리다. 분별심으로 옳다 그르다 할 뿐이다. 말 없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자리부터 관(觀)하자.

종교간대화 평의회 봉축메시지 발표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폴 조세프 장 푸파르 추기경)가 봉축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간대화평의회는 메시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전 세계 각지의 불교 공동체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대화는 풍요로운 종교 간 관계를 맺어가는 확실한 길"이라며 종교 간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톨릭 주교회의 김희중 주교도 5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교구(敎區)를 관할하는 성직자인 주교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총무원장스님을 예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남동우 기자

신 · 해 · 행 · 증 불자의 근본 가슴에 새겨

빛고을아카데미 9일 회향

4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광주 동구 KT센터 대강당을 뜨겁게 달궜던 2007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5월 9일 영진(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스님의 '증득(證): 참다운 불법은 깨달음에 있다'의 강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혜월)와 광주 승보회(회장 석장, 문빈정사 주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혜거(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미산(중앙승가대 교수), 월호(쌍계사 강원 강사) 스님 등이 불교의 기본 신행체계인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연인원 3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좌는 신해행증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하는 주제여서 관심이 높았다. 관련기사 9면 김원우 기자

빛으로 오신 부처님 어둠 밝히는 가르침

서울시청 앞 '나눔과 희망의 등' 점등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나누는 '나눔과 화합의 등'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사진).

5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지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글=남동우 · 사진=박재완 기자

선무도
선체조/선요가/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경주 총본원 골굴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서울 : 종로 02)763-2980
서초 02)581-6521 방배 02)599-5554
송파 02)3431-498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7
·인천 032)541-6301 일산 031)924-5655
·안산 031)475-2600 청주 043)285-1732
·대구 053)525-0718 포항 054)275-6069
·울산 052)276-6271 양산 055)382-5074
·부산 :
보림 051)524-1600 중앙 051)464-1380
금정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U.S.A L.A 213-487-5377
·Canada Toronto 941-656-9642
·Austria Salzburg 06-215-5394
·France Toulouse 05-61-08-1010
(사)세계선무도협회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I love Buddha / 마음 바꾸기

용정운(www.zentoon.com)

인물經세상鏡

최만희 · 충희 형제의 '행복한 희망사항'

최만희 시인은 요즘 행복하다. 작년 30년 공직 생활을 정리하며 발원했던 삼성 스님의 이야기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운주사)를 지난 3월에 출간 했고 반응도 좋기 때문이다. 최 시인은 25년간 삼성 스님을 시봉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청년회 활동을 하던 그의 불심에 삼성 스님의 "양심이 불심이다"라는 가르침이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는 바로 삼성 스님의 일기를 바탕으로 최 시인이 엮은 책이다. 처음엔 "이 책을 내고 종단의 스님들이 상당히 화를 내고 고소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오히려 좋은 반응으로 어필되고 있다. 이제 최 시인은 이 책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읽혀 '양심적인 세상'이 되기만을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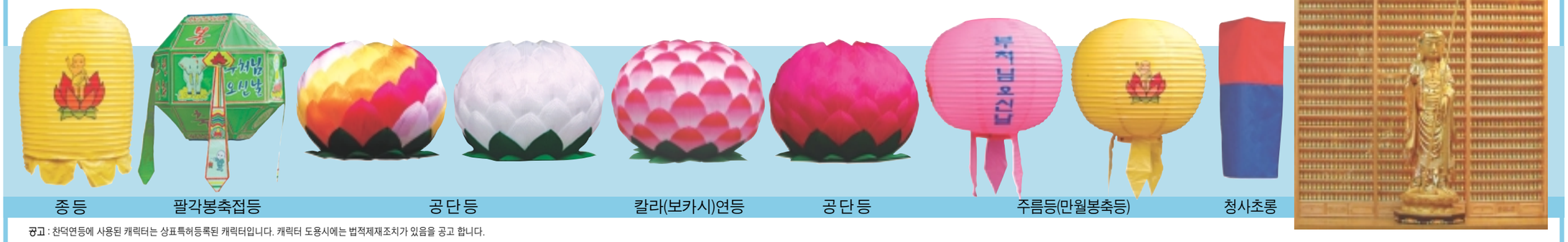
그런데 최 시인의 친동생인 최충희(늘봄공원 상무이사)씨는 획기적인 발원을 했다. 삼성 스님의 생애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문관에서…>를 한 참에 읽었다는 최충희씨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간 스님이 있다는 것을 보다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어 낸다면 그보다 더 큰 법문이 어디 있겠느냐"며 "형님이 평소 입만 열면 불교 얘기를 해서 싫증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 더 깊이 형님을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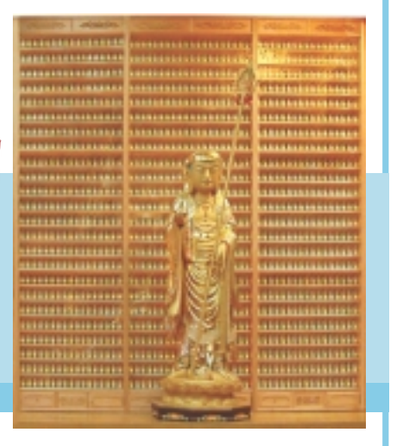
최충희씨는 자신이 일하는 업소에 영화인이나 프로듀서들이 적잖게 출입하고 친분도 있다는 점에 착안, 그들에게 <무문관에서…>를 법보시 하기로 했다. 그 책을 읽은 뒤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두 형제는 "언젠가 우리들의 희망사항이 현실이 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손을 맞잡았다. 임연태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